

‘쌀 목표가격’ 들끓는 농심 9600원으로 달래질까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하라

2013.10.23 전남도청앞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지난 23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을 촉구하며 40kg 버가마 2000여 개를 아작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 17만9697원까지 인상 검토 농민들 “8년 제자리...23만원 돼야”

민주당 “19만6000원으로” ... 새누리당도 재검토 요구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추가 인상해 17만9697원까지 끌어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지만 20만원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야당과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향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80kg당 17만83원으로 고정됐다. 지난해 기준 목표가격의 적용기간이 종료되자 농식품부는 2013~2017년 생산한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가격보다 4000원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30일 현행 쌀 목표가격 제도의 큰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17만9697원까지 추가 인상하는 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2005년 쌀 목표가

격 제도를 도입할 당시 쌀 고정직불금이 60만원이었으나 올해 80만원으로 인상됐고 현 정부가 10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인 점을 고려하면 목표가격 추가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농해수위 국감 자리에서 “현재 목표가격의 취지와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목표가격 대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겼다.

이 장관이 말한 ‘현 목표가격의 취지와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의 ‘마지노선’이 바로 17만9697원인 셈이다.

농심을 들끓게 한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 소득 보전장치로 산지쌀값

이 목표가격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과거 추곡수매가와는 다른 개념이라도 목표가격이 농가 소득에 직접 되는 만큼 농민과 농민단체들은 목표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농민들은 “8년간 한 푼도 올리지 않았으면서 고작 4000원 인상하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쌀 목표가격이 최소 23만원은 돼야 한다”고 요구하며 버가마 아작을 하고 나섰다.

김영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쌀 목표가격을 약 19만6000원으로 인상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안이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추가 인상 검토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의 반발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당장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들은 “이 장관은 정

부의 기존 안인 쌀값 2.3% 인상이 국회와 농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이를 돌연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장관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 ‘현재 쌀 목표가격이 쌀 생산비보다 높고 현재 법령 내에서 최적의 것’을 인정하며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이를 돌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장관이 기존의 입장을

밥 한 그릇은 하늘이고 신이며 영혼이자 꿈



(50) 쌀

“시 한 편에 삼만 원이면/너무 박하다 싶다가도/쌀이 두말인데 생각하면/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시집 한 권에 삼천 원이면/돈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국밥이 한 그릇인데...”(한민복 ‘긍정적인 밥’ 중에서)



임옥상 작 ‘별밤’

을 얻기 위해 180일 간의 하늘의 보살핌, 7근의 땅, 88번의 손길이 지극정성으로 달아야 한다고 한다. 먹거리가 지천이라 더 이상 쌀이 귀하지 않은 요즘 세상에도 쌀은 누구에게나 생명의 근원이고 삶의 뿌리이다.

임옥상(1950~)의 ‘별밤’은 일곱 그릇의 밥을 판별해 흙, 먹 그리고 아르킬로 채색한 작품이다. 밥을 별자리에 놓은 작가는 “쌀 한 움큼을 농사를 디자인과 점목, 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농도는 우리 남도의 쌀 브랜드를 위한 쌀 포장 디자인과 21세기 ‘짜전(쌀가게)’을 새롭게 제안하고, 관객에게 두 가족 한 끼 식사량인 250g 쌀 한 봉지를 선사하는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해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

쌀은 우리 몸의 살을 만들어준다 해서 쌀이라 불린다. 흔히 쌀 한 톨

을 얻기 위해 180일 간의 하늘의 보살핌, 7근의 땅, 88번의 손길이 지극정성으로 달아야 한다고 한다. 먹거리가 지천이라 더 이상 쌀이 귀하지 않은 요즘 세상에도 쌀은 누구에게나 생명의 근원이고 삶의 뿌리이다.

임옥상(1950~)의 ‘별밤’은 일곱 그릇의 밥을 판별해 흙, 먹 그리고 아르킬로 채색한 작품이다. 밥을 별자리에 놓은 작가는 “쌀 한 움큼을 농사를 디자인과 점목, 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농도는 우리 남도의 쌀 브랜드를 위한 쌀 포장 디자인과 21세기 ‘짜전(쌀가게)’을 새롭게 제안하고, 관객에게 두 가족 한 끼 식사량인 250g 쌀 한 봉지를 선사하는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해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

쌀은 우리 몸의 살을 만들어준다 해서 쌀이라 불린다. 흔히 쌀 한 톨

“PK 인사 편중 ‘제2의 초원복집 사건’”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인사 맹공

민주당은 30일 사정라인 ‘PK(부산·경남) 출신 편중’을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PK 인사 편중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직후인 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부산지역 기관장들과 만나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의 선거대책을 논의한 초원복집 사건을 상기시키며 ‘제2의 초원복집 사건’으로 규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내정을 “김기춘-정홍원-김진태 초원복집 3인방의 3각 편대 재구축”이라고 규정했다. 초원복집 사건 때 김 실장은 당사자였고, 정 총리는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서 수사를 총괄했으며 김 후보자는 담당 검사였다.

원 원내대표는 “김진태 카드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제2의 초원복

집’으로 만들려는 게 아닌지 불안하다”면서 “우물 안 인사는 인사방사, 인사참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KBS라디오에 출연, “대통합이 아니라 일사불란, 상명하복을 인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정원 사건 재판은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돼 간접적으로나마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날 오후 김진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박웅진 대변인은 “기춘 대원군(김기춘)의 편중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인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개입 여부와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면서 “특히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을 갖췄는지 엄중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또 인사 난맥과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제라도 대통령이 나서 (국정원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사과하면 된다”며 “사정기관장 ‘싸슬이 인사’도 박 대통령이 직접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빛의만평

- 김중두

‘나라꼴’이 가 막힙니다

2013 가사문화권 Green 자정거 한마당

11월 9일 토 | 오후 1시 광주 호수생태공원·담양 가사문화권

- 1. 자정거사랑 행진 : 5km [비경쟁]
1.코 스 : 광주호수생태공원 → 충효교 → 가사문화관삼거리 → 지곡리삼거리 → 서산교 → 매홂로 → 금산교 → 매홂로 → 충효어린이집 → 송강로 → 충효제 → 충효주유소 → 충효행버들 → 광주호수생태공원
- 2.준비물 : 개인 안전장구, 자전거
*신체 건강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선착순 접수합니다. 소정의 기념품은 배부호를 부착한 완주자에 한해 지급합니다.
- 2. 건강걷기 : 2.5km [비경쟁]
1.코 스 : 광주호수생태공원 → 환벽당삼거리 → 환벽당 → 환벽동네 → 광주동초충효분교 → 충효행버들 → 충효행버들 → 광주호수생태공원
- 2.준비물 : 걷기에 적합한 복장
*신체 건강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선착순 접수합니다. 소정의 기념품은 배부호를 부착한 완주자에 한해 지급합니다.
- 3. 백일장대회
1.대 상 : 초등학생, 중학생
2.부 문 : 운문, 산문
3.시 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우수상, 금상 수상자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4.결과발표 : 2013년 11월 20일(수), 광주일보 지면 발표
5.작품원고 : 현장에서 주최측 배포한 원고지를 사용하여 작성, 제출
6.주 제 : 세부제목은 행사 당일 현장 발표
7.준 비 물 : 백일장 작품 활동이 가능한 필기도구
8.유의사항 : 1)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2)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 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서 제외됨.
*본 행사의 모든 등록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 주 최 | 광주일보사
| 주 관 | 광주광역시사이클연맹 ·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트레킹연합회
| 후 원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문 의 |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TEL. 062-220-0541
*대중교통 : 충효187(광주호수생태공원 하차), 담양운수 225번(한국가사문화관 하차)